

##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 롬 3:1~19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성경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음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죽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에서는 선언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산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재판이나 심판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심판이 오고 재판이 있고 진노가 있더라도 떳떳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죄 문제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덮어두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덮어두고 피했다고 죄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 문제는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딪혀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생을 괴로움 속에 삽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각한 죄책감 속에 빠집니다. 세상에 살 때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도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세 종류의 사람**

그러면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 속에 있는 죄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다 드러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들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종류인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진노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칭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칭 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관철해 살아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에게도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심판 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위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하십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도 심판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했다고 심판 안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 사람도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 **유대인의 특권**

이 문제에 대해서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동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늘 대접받아 왔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은 특별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자신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못 참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것처럼 자신들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명제 앞에 유대인은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탁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유대인이 선택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과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할례를 특별히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런 얘기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여길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질문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았음이니라”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나은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합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큰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범사에 많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범사에 많은 것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 5절을 보십시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자됨, 언약, 영광, 율법, 예배, 약속, 조상, 그리스도까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랑할만 합니다. 이렇게 때문에 그들의 선택의식은 뿌리를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축복보다 더욱 결정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2절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을 말아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말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진리를 깨달아도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말았다고 하면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교회 파송선교사 중에 키이스 인터레이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유대인입니다. 그분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보면 기분 나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싸웁니다. 제 얘기는 언제부터 당신이 유대인이었는가? 유대인이 되기 전까지는 당신도 이방인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 생각에는 우리들은 하등상품이고 자신은 극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서로 허물이 없는 사이라서 아니다 당신과 나는 똑같다라고 논쟁도 하곤 합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도 아랍인들과 싸우고 우리도 북한하고 늘 대치해서 너희 심정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웃습니다. 남북정도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들을 어떻게 아느냐 합니다. 고난도 다르고 축복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들 생각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축복과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대해서는 특

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많은 특권과 예외가 있는데 딱 한 가지 죄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그들은 비참하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거늘 하물며 이방인에게는 어떨겠습니까? 죄문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가 드러났거나 숨겨졌거나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누구든지 죄 문제만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목사고 유대인이고 성직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은 항변을 하고 질문합니다. 4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불신앙을 감추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태양을 믿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어집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거부한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살아계십니다.

니체는 하나님을 죽여 버렸습니다.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니체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죽은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니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부인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정적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 의로우신 하나님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나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나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구절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아주 궤변을 늘어놓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궤변이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아주 이상한 논리와 궤변을 늘어놓아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에 대해 이론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의와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낸 것이었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불의는 상급을 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도록 만들었으니까 구원 사역에 공헌을 했다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그의 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궤변을 드러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이면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 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의한 사람에게 진노가 내리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6절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었겠는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억지스런 주장에 대해 사도바울은 단호히 그 궤변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까”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옳으며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 죄 아래 있는 존재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까지도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죄 문제 대해서 특권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죄가 드러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인간은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돈의 문제, 직장, 결혼의 문제, 자녀 문제 혹은 세상을 살아가는 크고 작은 선행의 문제를 아무리 얘기해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죄 아래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나으뇨’란 구절입니다. 나는 나은가?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 죄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십일조 하고 전도했다고 이 문제에서 제외되는가? 전도했다고 구원받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저주받을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 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특히 로버트 쉴러

목사가 제일 싫어합니다. 절대 그런 말 안합니다. 그는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적극적으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통과하지 않고 구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숨기고 변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 **결코 아니라**

두 번째는 '다 죄 아래'란 구절입니다. '다'라는 말은 이 지구상에 존재가 누구든지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영웅이든, 대통령이든, 성자이든, 성직자이든 예외 없이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끼리 더 잘났다 더 못났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인간이 해 아래 살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해 아래있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간은 태양 아래 존재하듯이 아무 누구도 비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을 양산으로 가리고 그 생긴 그늘로 인해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보다는 감옥에 가 있는 죄가 들킨 사람이 낫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습니다. 왜 그럴습니까? 그 마음이 들켰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고약한 사람은 죄가 안 들킨 사람입니다. 선하다고 생각하고 착하고 구제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남을 돕고 사는 사람들, 전도하고 사는 사람들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것일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봐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람의 죄가 씻어지기 전까지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한 진노와 심판을 그대로 있습니다.

### **의인은 없나니**

우리는 9절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가? 과연 우리가 죄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인가?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여기에서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인간이 죄인인 것을 10~18절까지 적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동의하십니까? 10~18절에서는 '없다'라는 말을 7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죄가 드러났건 드러나지 않았건 성경은 인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10~12절에는 일반적인 죄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13~14절에는 입술로 저지르는 모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17절에서는 행위에 대한 모든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죄의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참고 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의 증상이 미약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의 증상이 있으면 첫째 조심할 것은 우리 스스로 그 병을 진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병을 내 마음대로 추측해서 약을 먹으면 안됩니다. 그 증상을 인정해야 합니다. 증상을 감추면 병을 고칠 길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병을 고쳐 보려고 여러사람을 찾아다녔지만 병을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자기는 그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부하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수를 안 해줍니다. 엘리사가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일곱번 목욕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를 냈습니다. 돌아가자 합니다. 그 때 부하가 말 합니다. “장군이여, 요단강에 가서 일곱번 목욕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병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다 우리는 병을 가지고 있는데 병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병이 고쳐지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을 꺾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 옷을 벗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헌데를 다 보이고 상처를 다 보여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악한 문둥병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사 앞에서 옷을 벗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찰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 앞에 병을 인정하고 증상을 말하고 옷을 벗고 치료를 받아야 원인을 쫓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처방한대로 겸손히 그 병을 받아들일 때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영혼의 죄는 어떨겠습니까? 드러난 죄이거나 종교적인 죄이거나 종교적인 아닌 죄이거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감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곪아 썩어 죽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즐기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가 듣기 싫습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는 나중에 하시고 좀 다른 설교를 해주세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설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를 오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이 해결하십니다.

### **보혈의 십자가 앞으로**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죄가 드러난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죄가 숨겨진 사람도,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착하다는 사람들도, 종교적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꽃같은 눈으로 그것들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멀리하여질 것이며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던지게 할 것이며 뱁뻑한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결론을 얻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구원은 절대 불가능하다. 죄를 고백할 때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라. 숨기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여러 증상이 생깁니다. 고백하기 어려운 병도 있습니다. 조금 창피합니다. 그러나 고백해야 고침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창피해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 앞에 드러내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죄 때문에 겪는 죄책감과 고통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보혈의 심자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시며  
흰 눈같이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